

교회소식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화) 아름다운원로 나들이를 갑니다.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돈보다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을 해보세요.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은미 김광일 신정훈 김성순 양경해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김혜순 김애정 서수진 남명진 권혁래 설규범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어버이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양심 있는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이득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교 독 문 98. 어버이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박흥재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579.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함께

♣ 성경봉독 딤후 1:3-8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I. 박석희 집사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대

말 씬 아름다운 유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금분	강석남	강요한	원은이	이순원	강인식	김정숙	곽정자	국지연	연미숙	권혁순	순의나
박해경	김광일	이부용	김은옥	김기성	김기성	이은정	자름	김명희	김시영	김영국	박숙미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서미경	김종문	박미연	박희영	김혜영	김혜진	김재국	신연화	박숙미
문금석	민지희	박명제	박은철	박용철	김윤정	박재영	이현정	박상규	신연화	방준배	재경숙
박시내	박영희	박옥순	서수현	서혜설	규범송	형운하	미림	신정훈	이은미	안정숙	범의민
이수정	백묘현	서수옥	왕수명	유중희	은종인	이계선	이소월	이동천	이민영	이인웅	영옥진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이왕준	송상경	이영	정영	정영	정영	정영	정영	정영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정현	정두리	정선희	정연희	정영	정영	정영	정영	정영
오승경	이재문	이재삼	정진호	양순임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진현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정진호	양순임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진현
정재기	정종삼	정진호	최성애	한성건	정지혜	한훈식	허재희	허준호	허준호	허준호	허준호
조지연	최윤화	하현철	최성애	한성건	정지혜	한훈식	허재희	허준호	허준호	허준호	허준호
무명2											

감사헌금

강석남	김기석	김인아	김재흥	최희영	문금석	박기영	백현준	한지혜	송동준
김진경	오진훈	노순옥	유지은	윤정덕	구성실	이고임	임선양	신현숙	장영숙
정연경	조은상	김소연	추은총	홍성식	이유리	박창운	허정윤	무명17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용길 최영혜 이고임 허명선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재광 유동근 이은진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청파1속	김재흥	
안 디 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흥재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교회
에 베 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관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본적

청양군수가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내가 사는 일산 주소로 보내왔다.
 본적인 남양면 대봉리 653번지 지목이
 옛날 초가집 두 채 자리여서 대지인 줄 알았는데/ 밭으로 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여동생들이 고추와 맥문동을 심을 때
 사금과리와 기왓장과 모가 부드럽게 닳은 곱돌이
 식구들처럼 다정하게 어울리던 밭이다.
 혼자된 어머니가 좋아하던 홍화꽃과 도라지꽃이 출렁이고
 겨울을 춥게 보낸 언 고구마와 썩은 무를 버렸던 밭이다.
 어린 동생이 마당가에 눈 똥을 삽으로 떠다가 묻고
 그걸 알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가서 똥을 묻고 오던 밭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비어있자
 민들레씨앗이 날아와 해마다 식구를 늘리고
 무좀에 찢어 붙였던 쇠비름이 뿌리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명아주가 거미에게 공짜로 잎과 대궁을 빌려주어
 거미줄을 치고 반짝이는 아침 이슬을 매다는 밭이다.
 지붕이 없어서 별이 가득 내리고
 지붕이 없어서 내리는 비를 다 받고
 지붕이 없어서 내리는 눈을 다 덮고
 벽이 없어서 바람이 무시로 다녀가는 밭이다.
 개미와 땅강아지와 귀뚜라미와 지렁이가 모여 살고
 산비둘기가 오고 참새가 와서 발자국을 찍고 가는 밭이
 내 본적이다. - 공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물려받았고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중한 신앙과 양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물질적 유산만 생각하다 위대한 신앙과 양심의 유산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힘을 다해 그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호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김 크 집사

5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박유경			
	1부 헌금위원	오미숙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김종락	최재욱	정현숙 박영신 이수정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김인걸 박미영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절

봄이 무르익는 신록의 계절 5월이다.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등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만 사회도 국가도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올해에는 5월 말경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다. 민주국가의 증진을 위한 지방지치가 원활치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국민안락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존립의 기반인 가정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중차대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오늘날 경제 제일주의,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국가도 가정도 경제 타령만 하다 보니 단란하던 가정도 파탄으로 치달아 결국 곳곳에 결손가정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진정 복된 보금자리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하여 성도가 지향해야 할 윤리 도덕의 표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여 개인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때 각각의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어, 피차가 책임과 의무를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이 마땅하며, 만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인간적 생각에 의하여 처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공동체라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마련일 것이다. 작거나 크거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지배하여 강압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으로 포용할 때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본질이 나타난다. 동화에도 있듯이 '행인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는 힘은 거센 바람이 아니고, 오히려 따스한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릴 때 그 외투를 스스로 벗게 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이 지 않는가?

피차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 하겠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즉시로 완전한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자신의 미흡한 면이 드러날 때 구원까지도 들먹이며 실망하기 일췌이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한 성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한 부부관계의 원칙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져야 할 인간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피차가 서로서로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며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성립된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중심점이 되어, 점점 그 원을 넓히므로 나와 동반자, 가족뿐 아니라 사회, 국가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에 주어질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서로가 순복하게 될 때 다양성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랑의 일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정이 올바르게 흥하여 행복한 가정이 늘어갈수록 이 나라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곧 가정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될 것이니 이 5월에 다시 한 번 다 같이 서로서로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2006년 5월에

- 김성한, 「영원히 사는 길」 중에서

* 김성한 장로님은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청파교회 장로로 일하셨고 올해 2월 10일에 별세하셨습니다.